열린가능성: <u>오픈소스의 미래를 위한 혁신</u> 전략

Open Possibilities: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Open Source in Korea

배권한

Python Software Foundation



CONTENTS

- 01 혁신전략 요약
- 02 오픈소스의 구성요소
- 03 한국 오픈소스의 현실
- 04 혁신 전략

여긴 전략 요약

-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의 변화로 기여자 확보
- 공동체 기여로 지원하는 오픈소스 생태계
- 지원 제도의 변화를 통한 장기적 기여자 양성을 통한 안정성 확보

- Part of experimentation is to see what doesn't work. The only way you're gonna know what you wanna do is you have to establish what you don't want. - Edward Lee
-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려면, 하고싶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한다. 이균

여긴 전략 요약

- 리눅스 1.5세대에 속하며 25년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왔습니다.
- 리눅스 초기 커뮤니티부터 각종 언어 커뮤니티 그리고 파이콘 한국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.
- 각종 국가 기관의 오픈소스인데 공개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의 변화를 보았습니다.
- 한국에서 김영근님에 이어 두번째로 Python Software Foundation 의 이사 가 되었습니다.
- 한국에서 첫번째로 PSF 의 이사로 다시 선임되었습니다.
- 동양인 그리고 동양에서 일을 하는 유일한 이사로 느낀 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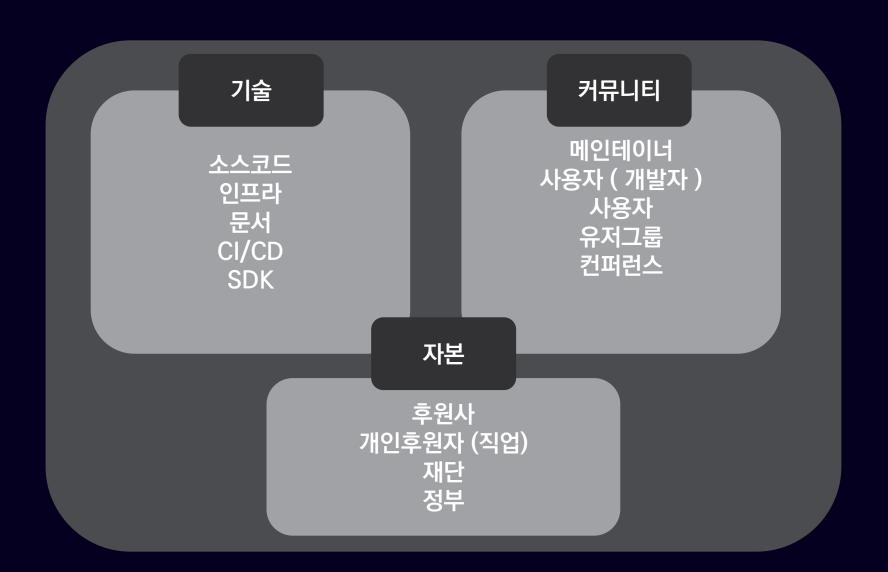


오픈소스 소프트웨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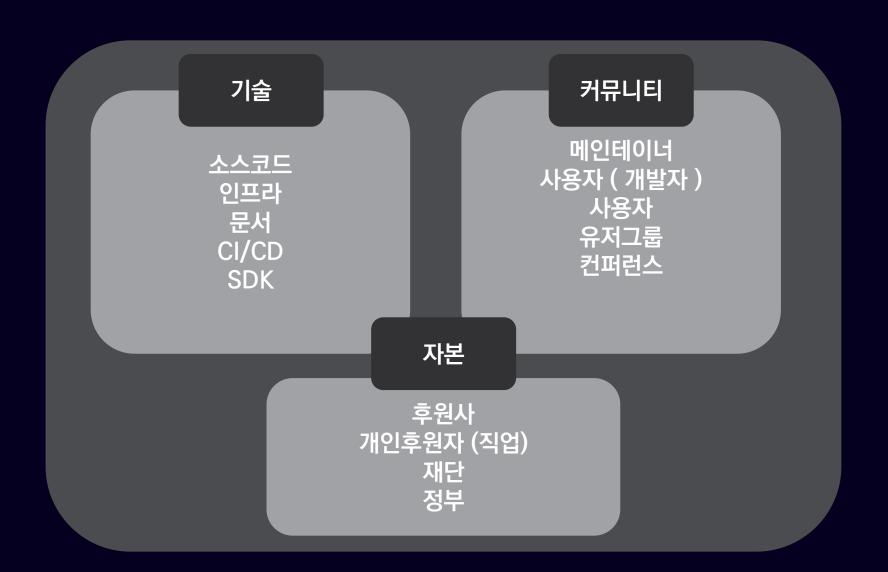


소스코드 인프라 문서 CI/CD SDK 메인테이너 사용자 (개발자) 사용자 유저그룹 컨퍼런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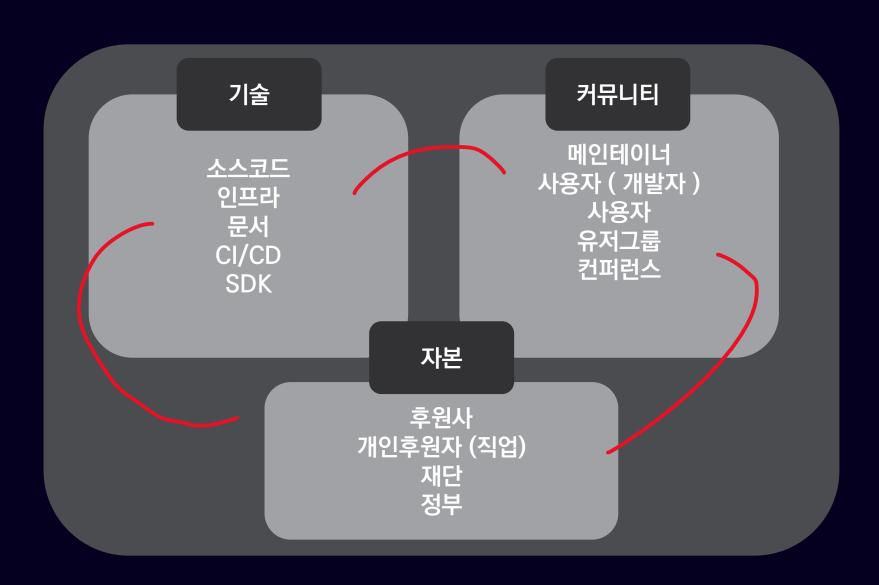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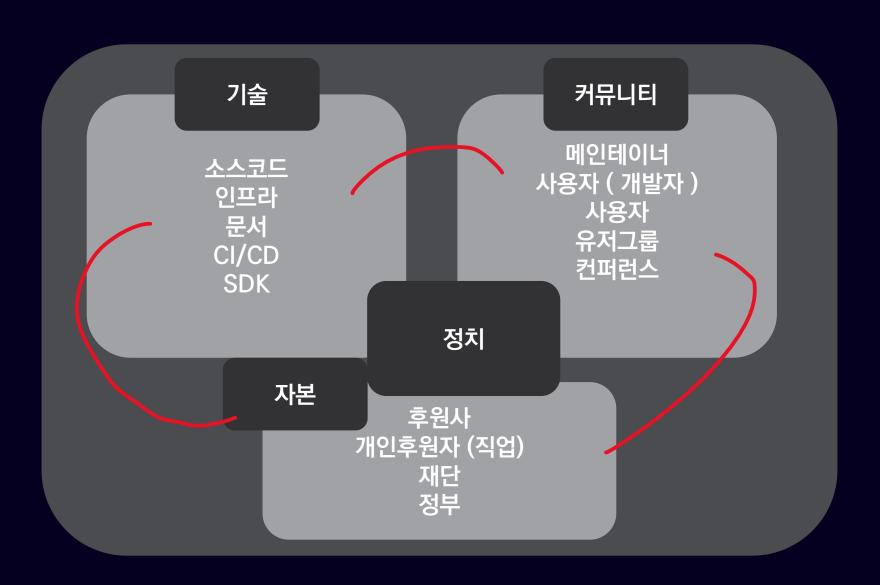


오픈소스의 구성요소 - 각 요소의 선순환이 중요





오픈소스의 구성요소 - 각 요소를 조율하는 정치 활동 필요



- 오픈소스는 기술과 커뮤니티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
- 기술 : 코드, 인프라, 문서
- 커뮤니티: 사용자, 개발자(사용자), 메인테이너, 유저그룹, 컨퍼런스
- 자본: 후원사, 개인후원자, 재단, 정부
- 커뮤니티에서 개발자와 메인테이너, 자본으로 선순환 구조

- 사용자, 커뮤니티 그리고 자본이 없는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로서 보기가 어 려움
-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오픈소스는 여기에 속함
- 오픈소스가 커지면서 정치활동이 필요해짐
- 기술, 커뮤니티, 자본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합의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활 동

02 오픈소스의 구성요소 - 선순환의 예

- 선순환 구조 개인
 - 오픈소스 기여를 통한 능력 개발
 - 능력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
 - 오픈소스에 기부 혹은 기여자 양성
 - PyLadies Action 의 예
- 선순환 구조 회사
 - 오픈소스에 기부를 통하여 필요한 개선을 완성
 - 필요한 개선을 회사 비용에서 커뮤니티로 이전, 유지보수 비용 제거
 - 커뮤니티에 후원,기부를 통하여 필요한 개발 인력 수급
 - 컨퍼런스 후원을 통하여 홍보, 입력 수급 유지
 - 회사의 개발자들의 시간을 (20%) 투입하여 오픈소스에 대한 영향력 유지

- 정부지원 정책의 문제
 - 정책의 근거가 오래되어 현재의 필요와 정책이 상이함
 - 자문위원은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 부족 : 오픈소스 유공자인데 HWP 로 신청
 - 25년전과 10년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름
- 국내향 오픈소스의 난립 : 공모전형 오픈소스, 공모전 수상 후 없어짐
- 한국 스포츠 지원 제도의 장단점을 그대로 답습

- 해커톤은 오픈소스와 다름: 해커톤을 오픈소스로 혼동하는 사례
- 커뮤니티 기반의 행사보다는 상업적인 행사
 - 회사의 목표와 커뮤니티의 목표가 다름
- 권위와 트로피를 맹종, 오픈소스 명사, 명성 사냥꾼 난립
 - 오픈소스 활동가가 지속적인 동력을 상실함
 - 컨퍼런스 체어는 자원봉사, 한국에서는 좌장, 의장으로 의미가 커짐.
- 커뮤니티 활동 = 실력이라는 오해
 - 기여로 존경은 필요하지만 개발 업무 능력과는 다름
 - 취업에 쓰이고 회사는 실망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안함

-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미흡한 인식
 - 커뮤니티는 같이 만들어가는 것
 - 전문 행사 진행자를 섭외하면 커뮤니티의 행사가 아니게됨
 - 운영진와 참가자는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
 - 미흡하면 같이 개선을 해나가야하지만..
 - 행사 운영이 원할하지 않다.
 - 티켓이 비싼데 해먹는것이 아니냐
 - 밥도 안준다.
 - 한국의 물가와 행사장 물가가 비싼 것이 문제
- 공격적인 것보다는 발전적인 협업이 필요함

혁신 전략



혁신전략 - 인식의 변화로 기여자 확보

-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의 변화로 기여자 확보
 - 오픈소스 기여는 단기보다 장기적인 기여가 필요 : 공부에만 최소 1년, 기여는 3년
 - 혼자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을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기 : 한국인의 특징, 혼자만 잘함, 시스템화 필요
 - 오픈소스에서 얻는 것은 나 자신의 성장, 그 외의 대가를 바라면 기여가 어려움 : 오픈 소스 지원을 받아서 혼자 독식, 취업 후 사라짐
 - 오픈소스, 커뮤니티 활동은 취미 및 기여로 인식이 필요 : 각자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
 - 회사에서는 개인의 이익으로 인식 하는 경우가 많음 : 취업, 이력등
 - 오픈소스 사용자 입장에서
 - 당연히 고쳐줘야 하는것 아니야 보다는
 - 상세한 피드백과 문제점 레포팅이 필요함
 - 활동가에게 응원과 발전적인 피드백을 줘야함



혁신전략 - 인식의 변화로 기여자 확보

- 다양성 추구
 - DEI 와 Code of Conduct : 왜 오픈소스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가?
 -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:
 - 오픈소스 기여는 모두가 가능하다는 인식 필요 : 번역, 튜토리얼 작성으로 충분, 단 공개 적으로
 - <u>○ 컨퍼런스는 교육보다는 네트워킹을 통한 기여의 장으로 :</u>
 -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다양한 기여가 필요함 : 관공서, 교사, 과학자
 - 박사라고 오픈소스의 전문가가 아님, PSF 이사가 오픈소스 코드의 전문가인가? 커뮤니 티의 전문가



혁신전략 - 공동체 기여로 지원하는 오픈소스 생태계

- 공동체 기여로 지원하는 오픈소스 생태계
- 오픈소스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자원이므로 모두의 기여가 필요
 - 패키지를 호스팅하고 서비스 하는 비용
 - pypi 는 현재 23T, 분당 6백만 다운로드
 - 현재 CDN 업체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것인가?
 - Github 는 Microsoft 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여기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것인가?



혁신전략 - 공동체 기여로 지원하는 오픈소스 생태계

- 오픈소스의 기능 개발을 위한 기여 역시 필요
 - 수많은 사용케이스를 지원하면서 기능 개선 필요
 - 파이썬의 GIL
 - 후원사인 회사들의 요구사항
 - 사용자인 개발자, 과학자들의 요구사항
 - 수없이 많은 라이브러리, 프레임워크들
 - 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난 개발자들과 커뮤니티의 지원
 - 그런 개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금
 -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?



혁신전략 - 공동체 기여로 지원하는 오픈소스 생태계

- 한국은 과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?
 - 모두가 산소처럼 파이썬을 쓰지만, PSF 에 아직 한국 기업의 후원은 전무.
 - 회사는 재단에 후원이 필요
 - 컨퍼런스를 후원과 응원의 목적으로 후원 필요

여선 혁신전략 - 지원제도의 변화

- 지원 제도의 변화를 통한 장기적 기여자 양성을 통한 안정성 확보
 - 대학의 경우
 -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도록 오픈소스,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과제 지원
 - 단기간의 오픈소스 사용이 아니라 장기간의 충분한 기여가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 필요
 - 회사의 경우
 - 해외 메인테이너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컨퍼런스, 스프린트 참가비 세제 지원 : 영어가 부족해도 바로 현장에서 소통해서 빠른 기여 가능
 - 현재처럼 개인의 비용이 든다면 지속되기 어려움 : 아시아나 다이아몬드
 - PSF 의 경우 모두 각자 소속 회사에서 지원 : 돈이 없다면 기여를 할 기회가 없어짐
 - PyCon US 의 경우 휴가 2주가 필요, 일반 직원이 참가 가능한가?



혁신전략 - 지원제도의 변화

- 지원 제도의 기준 변경이 필요
 - 국내향 오픈소스보다는 글로벌 오픈소스를 우선시 : 수요가 많아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선순환
 - 플랫폼보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: 플랫폼은 오픈소스가 적합하지 않음,
 - 해커톤 대신 스프린트 지원 : 해커톤은 산출물 평가는 쉬우나 단기간, 오픈소스 기여가 아님
 - 연속성이 있게 기여하는 사람을 지원 : 1년단위 지원보다는 3년단위, PSF 임기도 3년

감사합니다.

열린가능성:

오픈소스의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